

매일 미사 전례 독서

2017년 2월

신심 미사 평화의 모후 복되신 동정 마리아

제1독서 <그 왕권은 강대하고, 그 평화는 끝이 없으리이다.>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9,1-3,5-6

¹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²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뻐합니다, 수확할 때 기뻐하듯,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 ³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멘 장대와, 부역 감독관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치신 그 날처럼 부수십니다.

⁵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이다.

⁶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놓인 그 왕권은 강대하고, 그 평화는 끝이 없으리이다. 그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공정과 정의로 그 왕국을 굳게 세우고 지켜 가리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85(84),9.11-12.13-14(◎ 9ㄴㄷ 참조)

<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

◎ 주님은 당신 백성에게 평화를 말씀하신다.

<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

○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들은 다시는 어리석게 살지 않으리라. ◎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오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복음 환호송

루카 1,28 참조

◎ 알렐루야.

○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나이다.

◎ 알렐루야.

복 음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6-38

그때에 ²⁶ 하느님께서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²⁷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²⁸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²⁹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³⁰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³¹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³²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³³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³⁴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³⁵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³⁶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³⁷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³⁸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1일
연중 제4주간 수요일

제1독서 <주님께서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신다.>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2,4-7.11-15

형제 여러분, ⁴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면서 아직 피를 흘리며 죽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⁵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시면서 내리시는 권고를 잊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이야,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⁶ 주님께서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이를 채찍질하신다.”

⁷ 여러분의 시련을 훈육으로 여겨 견디어 내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아버지에게서 훈육을 받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¹¹ 모든 훈육이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줍니다. ¹² 그러므로 맥 풀린 손과 힘 빠진 무릎을 바로 세워 ¹³ 바른길을 달려가십시오. 그리하여 절름거리리는 다리가 접질리지 않고 오히려 낮게 하십시오.

¹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뵈지 못할 것입니다. ¹⁵ 여러분은 아무도 하느님의 은총을 놓쳐 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또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하나라도 솟아나 혼란을 일으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03(102),1-2.13-14.17-18ㄱ(◎ 17ㄴ)

- ◎ 주님의 자애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머무르리라.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아버지가 자식을 가여워하듯,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 가여워하시네. 우리의 됄됨이를 익히 아시고, 우리가 한낱 티끌임을 기억하시네. ◎
- 주님의 자애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머무르고, 그분의 의로움은 대대손손, 그분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이르리라. ◎

복음 환호송

요한 10,27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 알렐루야.

복 음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1-6

그때에 ¹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²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³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⁴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⁵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 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⁶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2일 목요일

주님 봉헌 축일

(봉헌 생활의 날)

제1독서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 말라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3,1-4<또는 히브 2,14-18>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¹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홀연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사자, 보라, 그가 온다.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² 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디어 내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겠느냐?

그는 제련사의 불 같고, 염색공의 잿물 같으리라. ³ 그는 은 제련사와 정련사 처럼 앉아, 레위의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정련하여, 주님에게

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리라.

4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주님 마음에 들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24(23),7.8.9.10(◎ 10ㄴㄷ)

- ◎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입니다.
-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
-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힘세고 용맹하신 주님, 싸움에 용맹하신 주님입니다. ◎
-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
-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입니다. ◎

복음 환호송

루카 2,32 참조

- ◎ 알렐루야.
- 그리스도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시네.
- ◎ 알렐루야.

복 음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22-40<또는 2,22-32>

짧은 독서를 할 때에는 <·> 부분을 생략한다.

22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23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24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25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26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뵈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 주셨다.

27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28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29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30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31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32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33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34 시메온

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 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³⁵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³⁶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프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일곱 해를 살고서는, ³⁷ 여든네 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³⁸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아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³⁹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래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⁴⁰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3일

연중 제4주간 금요일

제1독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십니다.>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3,1-8

형제 여러분, ¹ 형제애를 계속 실천하십시오. ² 손님 접대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손님 접대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접대하기도 하였 습니다. ³ 감옥에 갇힌 이들을 여러분도 함께 갇힌 것처럼 기억해 주고, 학대받는 이들을 여러분 자신이 몸으로 겪는 것처럼 기억해 주십시오.

⁴ 혼인은 모든 사람에게서 존중되어야 하고, 부부의 잠자리는 더럽혀지지 말아야 합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하느님께서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⁵ 돈 욕심에 얽매어 살지 말고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분께서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⁶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⁷ 하느님의 말씀을 일러 준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27(26),1.3.5.8ㄷ-9(◎ 1ㄱ)

-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다.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라?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라? ◎
- 나를 거슬러 군대가 진을 쳐도, 내 마음 두렵지 않으리라. 나를 거슬러 전쟁이 일어나도, 그래도 나는 안심하리라. ◎
- 환난의 날, 그분은 나를 당신 초막에 숨기시고, 당신 천막 은밀한 곳에 감추시며, 바위 위로 나를 올려 세우시리라. ◎
-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시고, 분노하며 당신 종을 물리치지 마소서. 당신은 저를 돕는 분이시옵니다.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

복음 환호송

루카 8,15 참조

- ◎ 알렐루야.
-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 ◎ 알렐루야.

복 음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14-29

그때에 ¹⁴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¹⁵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¹⁶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¹⁷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 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¹⁸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¹⁹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²⁰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들곤 하였기 때문이다.

²¹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래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²²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²³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²⁴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²⁵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²⁶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²⁷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²⁸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²⁹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주검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4일

연중 제4주간 토요일

제1독서 <위대한 목자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끌어올리신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3,15-17.20-21

형제 여러분, ¹⁵ 예수님을 통하여 언제나 하느님께 찬양 제물을 바칩시다. 그것은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¹⁶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제물입니다.

¹⁷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하느님께 섬을 해 드려야 하는 이들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탄식하는 일 없이 기쁘게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탄식은 여러분에게 손해가 됩니다.

²⁰ 영원한 계약의 피로, 양들의 위대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끌어올리신 평화의 하느님께서 ²¹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시어 여러분이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을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23(22),1-3 ㄱ.3ㄴㄷ-4.5.6(◎ 1)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복음 환호송

요한 10,27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 알렐루야.

복 음 <그들은 목자 없는 양들 같았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30-34

그때에 ³⁰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 하였다. ³¹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³²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곳으로 떠나갔다. ³³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³⁴ 예수님께서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5일
연중 제5주일

제1독서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리라.>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8,7-10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7 “네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네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 주고, 네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8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네 앞에 서서 가고, 주님의 영광이 네 뒤를 지켜 주리라. 9 그때 내가 부르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내가 부르짖으면 ‘나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리라. 네가 네 가운데에서 명예와 샷대질과 나쁜 말을 치워 버린다면, 10 굶주린 이에게 네 양식을 내어 주고, 고생하는 이의 넋을 흡족하게 해 준다면, 네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 오르고, 암흑이 너에게는 대낮처럼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2(111),4-5,6-7,8-9과 9(◎ 4-7)

- ◎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그 빛은 너그럽고 자비로우며 의롭다네. 잘되리라, 후하게 꾸어 주고, 자기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이! ◎
-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리니, 영원히 의인으로 기억되리라. 나쁜 소식에도 그는 겁내지 않고, 그 마음 굳게 주님을 신뢰하네. ◎
- 그 마음 굳세어 두려워하지 않네. 가난한 이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길이 이어지고, 그의 뿔은 영광 속에 높이 들리리라. ◎

제2독서 <나는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선포하였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2,1-5

1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갔을 때에, 뛰어난 말이나 지혜로 하느님의 신비를 선포하려고 가지 않았습시다. 2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3 사실 여러분에게 갔을 때에 나는 약했으며, 두렵고 또 무척 떨렸습니다. 4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5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힘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요한 8,12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13-16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15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16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6일 월요일

성 바오로 미키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제1독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1,1-19

1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2 땅은 아직 풀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3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4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느님께서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5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

6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에 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 7 하느님께서 이렇게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을 가르시자, 그대로 되었다. 8 하느님께서서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른날이 지났다.

⁹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곳으로 모여, 물이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¹⁰ 하느님께서서는 물을 땅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¹¹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¹² 땅은 푸른 싹을 돋아나게 하였다.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¹³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흘날이 지났다.

¹⁴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궁창에 빛물체들이 생겨, 낮과 밤을 가르고, 표징과 절기, 날과 해를 나타내어라. ¹⁵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는 빛물체들이 되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¹⁶ 하느님께서서는 큰 빛물체 두 개를 만드시어, 그 가운데에서 큰 빛물체는 낮을 다스리고 작은 빛물체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 ¹⁷ 하느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시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¹⁸ 낮과 밤을 다스리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¹⁹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흘날이 지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04(103),1-2,7.5-6.10과 12.24와 35ㄷ(◎ 31ㄴ)

- ◎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존엄과 영화를 입으시고, 광채를 겉옷처럼 두르셨나이다. ◎
- 땅을 기초 위에 든든히 세우시니, 영영 세세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바다로 땅을 옷처럼 덮으시니, 산 위까지 물이 가득 찼나이다. ◎
- 골짜기마다 샘물 터뜨리시니, 산과 산 굽이굽이 흘러내려, 하늘의 새들은 그 곁에 깃들이고,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나이다. ◎
-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그 모든 것 당신 슬기로 이루시니,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

복음 환호송

마태 4,23 참조

-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 알렐루야.

복 음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53-56

그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⁵³ 호수를 건너 겐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대었다.

⁵⁴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⁵⁵ 그 지방을 두루 뛰어 다니며 병든 이들을 들것에 눕혀, 그분께서 계시다는 곳마다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⁵⁶ 그리하여 마을이든 고을이든 촌락이든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만 하시면, 장터에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7일

연중 제5주간 화요일

제1독서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1,20-2,4ㄱ

²⁰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에는 생물이 우글거리고, 새들은 땅 위 하늘 공창 아래를 날아다녀라.” ²¹ 이렇게 하느님께서서는 큰 용들과 물에서 우글거리며 움직이는 온갖 생물들을 제 종류대로, 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²² 하느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번식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²³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셋날이 지났다.

²⁴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곧 짐짐승과 기어 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²⁵ 하느님께서서는 이렇게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짐짐승을 제 종류대로, 땅바닥을 기어 다니는 온갖 것을 제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²⁶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짐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²⁷ 하느님께서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²⁸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이나 침상을 찢는 일들이다.

⁵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⁶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⁷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⁸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⁹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¹⁰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¹¹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¹²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 드리지 못하게 한다. ¹³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8일

연중 제5주간 수요일

제1독서 <주 하느님께서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돌보게 하셨다.>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2,4ㄴ-9,15-17

⁴ 주 하느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⁵ 땅에는 아직 들의 덤불이 하나도 없고, 아직 들풀 한 포기도 돋아나지 않았다. 주 하느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흙을 일굴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⁶ 그런데 땅에서 안개가 솟아올라 땅거죽을 모두 적셨다. ⁷ 그때에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⁸ 주 하느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⁹ 주 하느님께서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¹⁵ 주 하느님께서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¹⁶ 그리고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

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어도 된다. ¹⁷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 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04(103),1-2ㄱ.27-28.29ㄴㄷ-30(◎ 1ㄱ)

-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존엄과 영화를 입으시고, 광채를 겉옷처럼 두르셨나이다. ◎
- 이 모든 것들이 당신께 바라나이다. 제때에 먹이를 달라 청하나이다. 당신이 주시면 그들은 모아들이고, 당신 손을 펼치시면 복이 넘치나이다. ◎
-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

복음 환호송

요한 17,17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 ◎ 알렐루야.

복 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7,14-23

그때에 ¹⁴ 예수님께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¹⁵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¹⁶⁾

¹⁷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¹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도 그토록 깨달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¹⁹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 속으로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 것이다.

²⁰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²¹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²² 간음, 탐욕, 악의, 시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²³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9일
연중 제5주간 목요일

제1독서 <주 하느님께서 여자를 사람에게 데려오셔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2,18-25

¹⁸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¹⁹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²⁰ 이렇게 사람은 모든 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

²¹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²²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²³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²⁴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²⁵ 사람과 그 아내는 둘 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28(127),1-2,3,4-5(◎ 1ㄱ 참조)

-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여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복음 환호송

야고 1,21

- ◎ 알렐루야.
- 너희 안에 심어진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여라. 그 말씀에는 너희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다.

◎ 알렐루야.

복 음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7,24-30

그때에 ²⁴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²⁵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²⁶ 그 부인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고 그분께 청하였다.

²⁷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²⁸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²⁹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가 보아라. 마귀가 이미 네 딸에게서 나갔다.” ³⁰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 아이는 침상에 누워 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10일 금요일

성녀 스콜라스티카 동정 기념일

제1독서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3,1-8

¹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²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³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⁴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⁵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6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 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7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두령이를 만들어 입었다.

8 그들은 주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사 람과 그 아내는 주 하느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32(31),1-2.5.6.7(◎ 1-7)

- ◎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은 이!
-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씻은 이! 행복하여라, 주님이 허물을 헤아리 지 않으시고, 그 영에 거짓이 없는 사람! ◎
- 제 잘못을 당신께 아뢰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았나이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하나이다.” 당신은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셨나이다. ◎
- 당신께 충실한 모든 이들이, 곤궁할 때 기도드리나이다. 큰물이 닥친다 하여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리이다. ◎
- 당신은 저의 피신처. 곤경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 이다. ◎

복음 환호송

사도 16,14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 아드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 ◎ 알렐루야.

복 음 <예수님께서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셨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7,31-37

그때에 ³¹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 데를 가로질러 갈릴래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³²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³³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³⁴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³⁵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36 예수님께서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37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11일

연중 제5주간 토요일

(세계 병자의 날)

제1독서 <주 하느님께서서는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치시어, 흙을 일구게 하셨다.>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3,9-24

9 주 하느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10 그가 대답하였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11 그분께서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알려 주더냐? 내가 너에게 따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따 먹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¹² 사람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13 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였다.

“뱀이 저를 꺾어서 제가 따 먹었습니다.”

14 주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짐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에서 저주를 받아, 네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 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¹⁵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16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임신하여 커다란 고통을 겪게 하리라. 너는 괴로움 속에서 자식들을 낳으리라. 너는 네 남편을 갈망하고, 그는 너의 주인이 되리라.”

17 그리고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따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사는 동안 줄곧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 먹으리라. ¹⁸ 땅은 네 앞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돋게 하고, 너는 들의 풀을 먹으리라. ¹⁹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

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²⁰ 사람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다. 그가 살아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²¹ 주 하느님께서서는 사람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다. ²²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사람이 선과 악을 알아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 먹고 영원히 살게 되어서는 안 되지.”

²³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서는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치시어, 그가 생겨 나온 흙을 일구게 하셨다. ²⁴ 이렇게 사람을 내쫓으신 다음, 에덴 동산 동쪽에 커룹들과 번쩍이는 불 칼을 세워,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90(89),2.3-4.5-6.12-13(◎ 1)

-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 산들이 솟기 전에, 땅이며 누리가 생기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시웁니다. ◎
-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웁니다. ◎
- 당신이 그들을 쫓아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웁니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복음 환호송

마태 4,4

- ◎ 알렐루야.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 알렐루야.

복 음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1-10

¹ 그 무렵 많은 군중이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²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³ 내가 저들을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저들 가운데에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4 그러자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누가 어디서 빵을 구해 저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5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일곱 개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6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일곱 개를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누어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7 또 제자들이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서는 그것도 축복하신 다음에 나누어 주라고 이르셨다.

8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일곱 바구니나 되었다. 9 사람들은 사천 명가량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나서, 10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타 지방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12일
연중 제6주일

제1독서 <주님께서서는 아무에게도 불경하게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

▣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15,15-20

¹⁵ 네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충실하게 사는 것은 네 뜻에 달려 있다. ¹⁶ 그분께서 네 앞에 물과 불을 놓으셨으니, 손을 뻗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라. ¹⁷ 사람 앞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으니, 어느 것이나 바라는 대로 받으리라. ¹⁸ 참으로 주님의 지혜는 위대하니, 그분께서는 능력이 넘치시고 모든 것을 보신다. ¹⁹ 그분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굽어보시고, 사람의 행위를 낱알이 아신다. ²⁰ 그분께서는 아무에게도 불경하게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지으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9(118),1-2.4-5.17-18.33-34(◎ 1 참조)

- ◎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 행복하여라, 온전한 길을 걷는 이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행복하여라, 그분의 법을 따르는 이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 이들! ◎
- 당신은 규정을 내리시어, 어김없이 지키라 하셨나이다. 당신 법령을 지키도록, 저의 길을 굳건하게 하소서. ◎
- 당신 종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제가 살아 당신 말씀 지키오리다. 제 눈을 열어 주소서. 당신의 놀라운 가르침 바라보리이다. ◎
- 주님, 당신 법령의 길을 가르치소서. 저는 끝까지 그 길을 따르오리다. 저를 깨우치소서. 당신 가르침을 따르고, 마음을 다하여 지키오리다. ◎

제2독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2,6-10

형제 여러분, ⁶ 성숙한 이들 가운데에서는 우리도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이 세상의 것도 아니고 파멸하게 되어 있는 이 세상 우두머리들의 것도 아닙니다. ⁷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롭고 또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⁸ 이 세상 우두머리들은 아무도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⁹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¹⁰ 하느님께서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마태 11,25 참조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알렐루야.

복 음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과 달리,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17-37<또는 5,20-22나.27-28,33-34나.37>

짧은 독서를 할 때에는 <·> 부분을 생략한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¹⁷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¹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¹⁹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 나라에서 큰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²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²¹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²²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²³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²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²⁵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²⁶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닢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

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²⁷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²⁸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²⁹ 네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³⁰ 또 네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³¹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 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³²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³³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 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³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좌이기 때문이다. ³⁵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위대하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³⁶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네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³⁷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13일

연중 제6주간 월요일

제1독서 〈카인이 자기 아우 아벨에게 덤벼들어 그를 죽였다.〉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4,1-15,25

¹ 사람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하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² 그 여자는 다시 카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기가 되고, 카인은 땅을 부치는 농부가 되었다.

³ 세월이 흐른 뒤에, 카인은 땅의 소출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⁴ 아벨은 양 떼 가운데 맘배들과 그 굳기름을 바쳤다.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꺼이 굽어보셨으나, ⁵ 카인과 그의 제물은 굽어보지 않으셨다. 그래서 카인은 몹시 화를 내며 얼굴을 떨어뜨렸다.

6 주님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고, 어찌하여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7 네가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네가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게 될 터인데, 너는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

8 카인이 아우 아벨에게 “들어 나가자.”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자기 아우 아벨에게 덤벼들어 그를 죽였다.

9 주님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10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들어 보아라. 네 아우의 피가 땅바닥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11 이제 너는 저주를 받아,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아 낸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12 네가 땅을 부쳐도, 그것이 너에게 더 이상 수확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될 것이다.”

13 카인이 주님께 아뢰었다. “그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나 큼니다. 14 당신께서 오늘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니, 저는 당신 앞에서 몸을 숨겨야 하고,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되어,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15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나 일곱 곱절로 양값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카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25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하니, 그 여자가 아들을 낳고는, “카인이 아벨을 죽여 버려, 하느님께서 그 대신 다른 자식 하나를 나에게 세워 주셨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50(49),1과 8.16ㄴㄷ-17.20-21(◎ 14ㄱ)

- ◎ 하느님께 찬양 제물을 바쳐라.
- 하느님, 주 하느님이 말씀하시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온 땅을 부르시네. “제사 때문에 너를 벌하지는 않으리라. 너의 번제야 언제나 내 앞에 있다.” ◎
- 어찌하여 내 계명을 늘어놓으며, 내 계약을 너의 입에 담느냐? 너는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말을 뒷전으로 팽개치지 않느냐? ◎
- 너는 앉아서 네 형제를 헐뜯고, 네 친형제에게 모욕을 준다. 네가 이런 짓들 저질러도 잠자코 있었더니, 내가 너와 똑같은 줄 아는구나. 나는 너를 벌하리라. 너의 행실 네 눈앞에 펼쳐 놓으리라. ◎

복음 환호송

요한 14,6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 알렐루야.

복 음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11-13

그때에 ¹¹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하였다.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¹²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¹³ 그리고 나서 그들을 버려두신 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14일 화요일

성 치릴로 수도자와 성 메토디오 주교 기념일

제1독서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6,5-8; 7,1-5.10

⁵ 주님께서서는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⁶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⁷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기어 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까지 쓸어버리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구나!”

⁸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의 눈에 들었다.

^{7.1} 주님께서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거라. 내가 보니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² 정결한 짐승은 모두 수놈과 암놈으로 일곱 쌍씩, 부정한 짐승은 수놈과 암놈으로 한 쌍씩 데려가거라. ³ 하늘의 새들도 수컷과 암컷으로 일곱 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⁴ 이제 이레가 지나면, 내가 사십 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 내가 만든 생물을 땅에서 모두 쓸어버리겠다.”

⁵ 노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¹⁰ 이레가 지나자 땅에 홍수가 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29(28),1과 2.3과 4.3과 9c-10(© 11c)

-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
-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
-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

복음 환호송

요한 14,23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14-21

그때에 ¹⁴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 그들이 가진 빵이 배 안에 있는 한 개밖에 없었다. ¹⁵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분부하셨다.

¹⁶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빵이 없다고 서로 수군거렸다.

¹⁷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완고하냐? ¹⁸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¹⁹ 내가 빵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빵 조각을 몇 광주리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열둘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²⁰ “빵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빵 조각을 몇 바구니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일곱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²¹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15일
연중 제6주간 수요일

제1독서 <노아가 내다보니 과연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8,6-13,20-22

⁶ 사십 일이 지난 뒤에,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 ⁷ 까마귀를 내보냈다. 까마귀는 밖으로 나가 땅에 물이 마를 때까지 왔다 갔다 하였다.

⁸ 그는 또 물이 땅에서 빠졌는지 보려고 비둘기를 내보냈다. ⁹ 그러나 비둘기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노아에게 돌아왔다. 온 땅에 아직도 물이 있었던 것이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아 방주 안으로 들여놓았다. ¹⁰ 그는 이레를 더 기다리다가 다시 그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다. ¹¹ 저녁때가 되어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싱싱한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다. 그래서 노아는 땅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게 되었다. ¹² 노아는 이레를 더 기다려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자 비둘기는 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¹³ 노아가 육백한 살이 되던 해, 첫째 달 초하룻날에 땅의 물이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내다보니 과연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²⁰ 노아는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번제물을 골라 그 제단 위에서 바쳤다. ²¹ 주님께서 그 향내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다.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한 뜻을 품기 마련,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이번에 한 것처럼 다시는 어떤 생물도 파멸시키지 않으리라. ²² 땅이 있는 한, 씨뿌리기와 거두기,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6(115),12-13,14-15,18-19ㄱㄴ(◎ 17ㄱ 참조)

- ◎ 주님, 당신께 감사 제물 바치나이다.
-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오?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
-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한네. ◎
-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주님의 집 앞뜰에서,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

복음 환호송

에페 1,17-18 참조

-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 알렐루야.

복 음 <눈먼 이는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뚜렷이 보게 되었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22-26

그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²² 벳사이다로 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먼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²³ 그분께서는 그 눈먼 이의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신 다음,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다. ²⁴ 그는 앞을 쳐다보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²⁵ 그분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손을 얹으시니 그가 똑똑히 보게 되었다. 그는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뚜렷이 보게 된 것이다.

²⁶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집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다. “저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16일

연중 제6주간 목요일

제1독서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9,1-13

¹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²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바닥을 기어 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이 너희의 손에 주어졌다. ³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풀을 주었듯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⁴ 다만 생명 곧 피가 들어 있는 살코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⁵ 나는 너희 각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는 어떤 짐승에게나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남의 피를 흘린 사람에게 나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⁶ 사람의 피를 흘린 자, 그자도 사람에게 의해서 피를 흘려야 하리라.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7 너희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땅에 우글거리고 그곳에서 번성하여라.”
 8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9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들과 내 계약을 세운다. 10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짐짐승과 땅의 모든 들짐승과 내 계약을 세운다. 11 내가 너희와 내 계약을 세우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덩어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2 하느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하여,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은 이것이다. 13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02(101),16-18.19-21.29와 22-23(© 20ㄴ)

- ◎ 주님은 하늘에서 땅을 굽어보시리라.
- 민족들이 주님 이름을, 세상 모든 임금이 당신 영광을 경외하리이다. 주님은 시온을 세우시고, 영광 속에 나타나시어, 햇빛은 이들의 기도를 굽어 들어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리라. ◎
- 오는 세대를 위하여 글로 남기리니, 새로 창조될 백성이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님이 드높은 성소에서 내려다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굽어보시리니, 포로의 신음을 들으시고, 죽음에 붙여진 이들을 풀어 주시리라. ◎
- “당신 종들의 자손은 편안히 살아가고, 그 후손은 당신 앞에 굳게 서 있으리이다.” 주님이 시온에서 당신 이름을, 예루살렘에서 당신 찬양을 전하시리라. 그 때에 백성들과 나라들이, 주님을 섬기러 모여들리라. ◎

복음 환호송

요한 6,63.68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 알렐루야.

복 음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27-33

그때에 27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28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29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30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31 예수님께서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32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33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17일

연중 제6주간 금요일

제1독서 <우리가 내려가서 사람의 말을 뒤섞어 놓자.>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11,1-9

1 온 세상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낱말들을 쓰고 있었다. 2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주해 오다가 신아르 지방에서 한 별판을 만나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3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 단단히 구워 내자.” 그리하여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진흙 대신 역청을 쓰게 되었다.

4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성읍을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이름을 날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자.”

5 그러자 주님께서 내려오시어, 사람들이 세운 성읍과 탑을 보시고 6 말씀하셨다. “보라, 저들은 한 겨레이고 모두 같은 말을 쓰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일 뿐,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7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자.”

8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거기에서 온 땅으로 흩어 버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읍을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9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다. 주님께서 거

기에서 온 땅의 말을 뒤섞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 버리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33(32),10-11.12-13.14-15(◎ 12ㄴ 참조)

-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주님은 민족들의 의지를 꺾으시고, 백성들의 계획을 흠으신다. 주님의 뜻은 영원히 이어지고, 그 마음속 계획은 대대로 이어진다. ◎
-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모든 사람을 살펴보신다. ◎
- 당신 머무시는 곳에서, 땅에 사는 모든 이를 지켜보신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 하나 빛으시고, 그들의 행위를 속속들이 헤아리신다. ◎

복음 환호송

요한 15,15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으니,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
- ◎ 알렐루야.

복 음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34-9,1

그때에 ³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³⁵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³⁶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³⁷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³⁸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9,1}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18일

연중 제6주간 토요일

제1독서 <믿음으로써, 우리는 세상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마련되었음을 깨닫습니다.>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1,1-7

형제 여러분, ¹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² 사실 옛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³ 믿음으로써, 우리는 세상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마련되었음을, 따라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음을 깨닫습니다.

⁴ 믿음으로써, 아벨은 카인보다 나은 제물을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믿음 덕분에 아벨은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느님께서서는 그의 예물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 덕분에 여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⁵ 믿음으로써, 에녹은 하늘로 들어 올려져 죽음을 겪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를 하늘로 들어 올리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늘로 들어 올려지기 전에 “하느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⁶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⁷ 믿음으로써,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관하여 지시를 받고, 경건한 마음으로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집안을 구하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에 따라 받는 의로움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45(144),2-3.4-5.10-11(◎ 1ㄴ 참조)

- ◎ 주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실 분, 그분의 위대하심 헤아릴 길 없으라. ◎
- 세대가 세대를 이어 당신 업적을 기리고, 당신 위업을 널리 전하리이다. 당신의 위엄 그 찬란한 영광을 이야기하고, 당신의 기적을 노래하리이다. ◎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복음 환호송

마르 9,7 참조

-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 알렐루야.

복 음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였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2-13

그때에 ²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³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⁴ 그때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⁵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⁶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⁷ 그때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⁸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⁹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¹⁰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¹¹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 학자들은 어째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¹²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는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느냐? ¹³ 사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엘리야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제멋대로 다루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19일
연중 제7주일

제1독서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19,1-2.17-18

1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2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¹⁷ 너희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동족의 잘못을 서슴없이 꾸짖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는다. ¹⁸ 너희는 동포에게 앙갚음하거나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03(102),1-2.3-4.8과 10.12-13(◎ 8-7)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
-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아버지가 자식을 가여워하듯,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 가여워하시네. ◎

제2독서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3,16-23

형제 여러분, ¹⁶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¹⁷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도 그자를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¹⁸ 아무도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이가 되어야 합니다. ¹⁹ 이 세상의 지혜가 하느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을 그들의 꾀로 붙잡으신다.” ²⁰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생각을 아신

다. 그것이 허황됨을 아신다.”

²¹ 그러므로 아무도 인간을 두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²² 바오로도 아플로도 케파도,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²³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1요한 2,5 참조

- ◎ 알렐루야.
-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되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38-48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³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³⁹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 대어라. ⁴⁰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⁴¹ 누가 너에게 천 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이천 걸음을 가 주어라. ⁴²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⁴³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⁴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⁴⁵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 주신다.

⁴⁶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⁴⁷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⁴⁸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20일

연중 제7주간 월요일

제1독서 <지혜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창조되었다.>

▣ 집회서의 시작입니다.

1,1-10

¹ 모든 지혜는 주님에게서 오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

² 누가 바다의 모래와 빗방울과 영원의 날들을 셀 수 있으랴? ³ 누가 하늘의 높이와 땅의 넓이를, 심연과 지혜를 헤아릴 수 있으랴?

⁴ 지혜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창조되었고, 명철한 지각도 영원으로부터 창조되었다. ⁵ 지혜의 근원은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이며, 지혜의 길은 영원한 계명이다.

⁶ 지혜의 뿌리가 누구에게 계시되었으며, 지혜의 놀라운 업적을 누가 알았느냐? ⁷ 지혜의 슬기가 누구에게 나타났으며, 지혜의 풍부한 경험을 누가 이해하였느냐?

⁸ 지극히 경외해야 할 지혜로운 이 한 분 계시니, 당신의 옥좌에 앉으신 분이시다.

⁹ 주님께서서는 지혜를 만드시고, 알아보며 헤아리실 뿐 아니라, 그것을 당신의 모든 일에, ¹⁰ 모든 피조물에게 후한 마음으로 쏟아부으셨으며,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주님의 사랑은 영광스러운 지혜이며, 그분께서는 당신을 보여 주실 이들에게 지혜를 베푸시어, 당신을 알아보게 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93(92),1ㄱ-1ㄷ-2,5(◎ 1ㄱ)

- ◎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주님이 차려입고 권능의 띠를 두르셨네. ◎
- 우리는 정녕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네. 예로부터 주님 어좌는 굳게 세워지고, 영원으로부터 주님은 계시네. ◎
- 당신 법은 실로 참되며, 당신 집에는 거룩함이 서리나이다. 주님, 길이길이 그러하시리이다. ◎

복음 환호송

2티모 1,10 참조

-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 알렐루야.

복 음 <주님,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14-29

그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¹⁴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 그 제자들이 군중에게 둘러싸여 율법 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¹⁵ 마침 군중이 모두 예수님을 보고는 몹시 놀라며 달려와 인사하였다.

¹⁶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저들과 무슨 논쟁을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¹⁷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스승님, 병어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스승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¹⁸ 어디에서건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러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뻗뻗해집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내 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¹⁹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한다는 말이나?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²⁰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 영은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아이를 뒤흔들어 댔다.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²¹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적부터입니다. ²² 저 영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으로도, 물속으로도 내던졌습니다.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없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²³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나?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시자, ²⁴ 아이 아버지가 곧바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²⁵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이 떼를 지어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병어리, 귀머거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²⁶ 그러자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마구 뒤흔들어 놓고 나가니,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아이가 죽었구나.” 하였다. ²⁷ 그러나 예수님께서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

²⁸ 그 뒤에 예수님께서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분께 따로,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²⁹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21일
연중 제7주간 화요일

제1독서 <너 자신을 시련에 대비시켜라.>

▣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2,1-11

- 1 애야, 주님을 섬기러 나아갈 때, 너 자신을 시련에 대비시켜라.
- 2 네 마음을 바로잡고 확고히 다지며, 재난이 닥칠 때 허둥대지 마라. ³ 주님께 매달려 떨어지지 마라. 네가 마지막에 번창하리라.
- 4 너에게 닥친 것은 무엇이나 받아들이고, 처지가 바뀌어 비천해지더라도 참고 견뎌라. ⁵ 금은 불로 단련되고, 주님께 맞갖은 이들은 비천의 도가니에서 단련된다. 질병과 가난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여라.
- 6 그분을 믿어라,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길을 바로잡고 그분께 희망을 두어라.
- 7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과, 그분의 자비를 기다려라. 빛나가지 마라. 넘어질까 두렵다.
- 8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과, 그분을 믿어라. 너희 상급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 ⁹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과, 좋은 것들과 영원한 즐거움과 자비를 바라라. 그분의 보상은 기쁨을 결들인 영원한 선물이다. ¹⁰ 지난 세대를 살펴보아라. 누가 주님을 믿고서 부끄러운 일을 당한 적이 있느냐? 누가 그분을 경외하면서 지내다가 버림받은 적이 있느냐? 누가 주님께 부르짖는데 소홀히 하신 적이 있느냐?
- 11 주님께서서는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재난의 때에 구해 주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37(36),3-4.18-19.27-28.39-40(◎ 5 참조)

- ◎ 주님께 네 길을 맡겨라. 그분이 몸소 해 주시리라.
- 주님을 믿으며 좋은 일 하고, 이 땅에 살며 신의를 지켜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여라. 네 마음이 청하는 대로 주시리라. ◎
- 주님이 흠 없는 이들의 삶을 아시니, 그들의 소유는 길이길이 남으리라. 환난의 때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이 닥쳐와도 굶주리지 않으리라. ◎
-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너는 길이 살리라. 주님은 올바른 것을 사랑하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 버리지 않으신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받지만, 악인의 자손은 멸망하리라. ◎
-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고, 그분은 어려울 때 피신처가 되신다. 의인들이 주님께 몸을 숨겼으니, 그분은 그들을 도와 구하시고, 악인에게서 빼내 구원하시리라. ◎

복음 환호송

갈라 6,14 참조

- ◎ 알렐루야.
- 나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으리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서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 ◎ 알렐루야.

복 음 <사람의 아들은 넘겨질 것이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어야 한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30-37

그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³⁰ 갈릴래아를 가로질러 갔는데, 예수님께서서는 누구에게도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³¹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³²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³³ 그들은 카파르나움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서는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하고 물으셨다. ³⁴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³⁵ 예수님께서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열두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³⁶ 그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에 세우신 다음, 그를 껴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³⁷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22일 수요일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

제1독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의 증인인 원로>

▮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5,1-4

사랑하는 여러분, ¹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원로들에게 같은 원로로서, 또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의 증인이며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으로서 권고합니다. ²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하느님의 양 떼를 잘 치십시오. 그들을 돌보되, 억지

로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진해서 하십시오.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 하지 말고 열성으로 하십시오. ³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에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 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⁴ 그러면 으뜸 목자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23(22),1-3+3Lc-4.5.6(◎ 1)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 오리다. ◎

복음 환호송

마태 16,18 참조

- ◎ 알렐루야.
-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너는 베드로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13-19

¹³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¹⁴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¹⁵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¹⁶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7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18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19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23일 목요일

성 폴리카르포 주교 순교자 기념일

제1독서 <주님께 돌아가기를 미루지 마라>

▣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5,1-8

1 재산을 믿지 말고, “넉넉하다.”고 말하지 마라.

2 너 자신과 네 힘을 붙좃지 말고, 마음의 욕망을 따르지 마라. 3 “누가 나를 억누르리오?” 하고 말하지 마라. 주님께서 기필코 징벌하시리라.

4 “죄를 지었어도 내게 아무 일도 없었지 않은가?” 하지 마라. 주님께서서는 분노에 더디시기 때문이다. 5 속죄를 과신하지 마라. 죄에 죄를 쌓을 뿐이다.

6 “그분의 인자함이 크시니, 수많은 내 죄악이 속죄받으리라.”고 말하지 마라. 정녕 자비도, 분노도 다 그분께 있고, 그분의 진노가 죄인들 위에 머무르리라.

7 주님께 돌아가기를 미루지 말고, 하루하루 늦추려 하지 마라. 정녕 주님의 분노가 갑자기 들이닥쳐, 너는 징벌의 날에 완전히 망하리라.

8 부정한 재산을 믿지 마라. 정녕 재난의 날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2,3,4와 6(◎ 40 [39], 5ㄱ나)

- ◎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 행복하여라!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 ◎
-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제때에 열매 맺고, 잎이 아니 시들어, 하는 일마다 모두 잘되리라. ◎

-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날리는 검불 같아라. 의인의 길은 주님이 아시고,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르리라.
- ◎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복음 환호송

1테살 2,13 참조

- ◎ 알렐루야.
- 하느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 ◎ 알렐루야.

복 음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41-50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4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42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43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44)

45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46)

47 또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 던져 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48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49 모두 불 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50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내겠느냐? 너희는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24일
연중 제7주간 금요일

제1독서 <성실한 친구는 값으로 따질 수 없다.>

▣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6,5-17

5 부드러운 말씨는 친구들을 많게 하고, 우아한 말은 정중한 인사를 많이 받게 한다. 6 너와 화목하게 지내는 친구들을 많이 만들되, 조언자는 천 명 가운데 하나만을 골라라.

7 친구를 얻으려거든 시험해 보고 얻되, 서둘러 그를 신뢰하지 마라. 8 제 좋을 때에만 친구가 되는 이가 있는데, 그는 네 고난의 날에 함께 있어 주지 않으리라.

9 원수로 변하는 친구도 있으니, 그는 너의 수치스러운 말다툼을 폭로하리라. 10 식탁의 친교나 즐기는 친구도 있으니, 그는 네 고난의 날에 함께 있어 주지 않으리라.

11 그는 네가 잘될 때에는 너 자신인 양 행세하고, 네 종들에게 마구 명령해 대리라. 12 그러나 네가 비천하게 되면, 그는 너를 배반하고 네 앞에서 자취를 감추리라.

13 원수들을 멀리하고, 친구들도 조심하여라.

14 성실한 친구는 든든한 피난처로서, 그를 얻으면 보물을 얻은 셈이다. 15 성실한 친구는 값으로 따질 수 없으니, 어떤 저울로도 그의 가치를 달 수 없다.

16 성실한 친구는 생명을 살리는 명약이니,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그런 친구를 얻으리라. 17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자신의 우정을 바르게 키워 나가니, 이웃도 그의 본을 따라 그대로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사편 119(118),12.16.18.27.34.35(◎ 35ㄱ 참조)

- ◎ 주님, 당신 계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 주님,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저에게 당신 규범 가르치소서. ◎
- 당신 규범을 기꺼이 지키며, 당신 말씀을 잊지 않으리이다. ◎
- 제 눈을 열어 주소서. 당신의 놀라운 가르침 바라보리이다. ◎
- 당신 규정의 길을 깨우쳐 주소서. 당신의 기적을 목상하오리다. ◎
- 저를 깨우치소서. 당신 가르침을 따르고, 마음을 다하여 지키오리다. ◎
- 당신 계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저는 이 길을 좋아하나이다. ◎

복음 환호송

요한 17,17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 ◎ 알렐루야.

복 음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1-12

그때에 예수님께서 ¹ 유다 지방과 요르단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²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³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⁴ 그들이 “‘이혼장을 써 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⁵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⁶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⁷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⁸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⁹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¹⁰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¹¹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¹²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25일

연중 제7주간 토요일

제1독서 <주님께서는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17,1-15

¹ 주님께서 사람을 흙에서 창조하시고, 그를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² 그분께서는 정해진 날수와 시간을 그들에게 주시고, 땅 위에 있는 것들을 다스릴 권한을 그들에게 주셨다.

³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처럼 그들에게 힘을 입히시고, 당신 모습으로 그들을 만

드셨다. ⁴ 그분께서는 모든 생물 안에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 놓으시고, 그들을 들짐승과 날짐승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⁵ 그들은 주님의 다섯 가지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덧붙여 그분께서는 여섯 번째로 그들에게 지성을 나누어 주시고, 일곱 번째로 그분의 능력들을 해석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다.

⁶ 그분께서는 분별력과 혀와 눈을 주시고, 귀와 마음을 주시어 깨닫게 하셨다. ⁷ 그분께서는 지식과 이해력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선과 악을 보여 주셨다.

⁸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당신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 주시어, 당신의 위대한 업적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셨다. ⁹ 그분의 위대한 업적을 선포하기 위하여, ¹⁰ 그들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리라.

¹¹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생명의 율법을 그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시어, 지금 살아 있는 존재들이 죽을 몸임을 깨우쳐 주셨다.

¹² 그분께서는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고, 당신의 판결을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¹³ 그들의 눈은 그분의 위대하신 영광을 보고, 그들의 귀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소리를 들었다.

¹⁴ 그분께서는 “온갖 불의를 조심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 각자에게 제 이웃에 대한 계명을 주셨다.

¹⁵ 그들의 길은 언제나 그분 앞에 드러나고, 그분의 눈앞에서 감추어지지 않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03(102),13-14.15-16.17-18ㄱ(◎ 17ㄱ)

- ◎ 주님의 자애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머무르리라.
- 아버지가 자식을 가여워하듯,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 가여워하시네. 우리의 됴됨이를 익히 아시고, 우리가 한낱 티끌임을 기억하시네. ◎
- 인생이란 그 세월 풀과 같아서, 들꽃처럼 그렇게 피어나지만, 바람 한 번 스쳐도 이내 사라져, 그 있던 자리조차 알 길이 없네. ◎
- 주님의 자애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머무르고, 그분의 의로움은 대대손손, 그분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이르리라. ◎

복음 환호송

마태 11,25 참조

-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 알렐루야.

복 음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13-16

그때에 ¹³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¹⁴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¹⁵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¹⁶ 그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26일
연중 제8주일

제1독서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49,14-15

¹⁴ 시온은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고 말하였지. ¹⁵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62(61),2-3.6-7.8-9ㄱㄴ(◎ 6ㄴ 참조)

- ◎ 내 영혼아, 하느님을 고요히 기다려라.
- 오로지 하느님에게서 내 구원이 오리니, 내 영혼 그분을 고요히 기다리네. 그분만이 내 바위, 내 구원, 내 성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
- 오로지 하느님에게서 내 희망이 오리니, 내 영혼아, 그분을 고요히 기다려라. 그분만이 내 바위, 내 구원, 내 성채.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
- 내 구원, 내 영광 하느님께 있고, 내 든든한 바위, 내 피신처 하느님 안에 있네. 백성아,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아라. ◎

제2독서 <주님께서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4,1-5

형제 여러분, ¹ 누구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시종으로, 하느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² 무릇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바는, 그가 성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³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 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⁴ 나는 잘못된 것이 없음을 압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⁵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밝히시고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저마다 하느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히브 4,12 참조

- ◎ 알렐루야.
- 하느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 ◎ 알렐루야.

복 음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24-3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²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²⁵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²⁶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 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²⁷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²⁸ 그리고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²⁹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화려하지 못하였다. ³⁰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³¹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³²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³³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³⁴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27일
연중 제8주간 월요일

제1독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 돌아와 하느님의 심판을 깨달아라.>

▣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17,24-29

하느님께서²⁴ 회개하는 이들에게는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인내심을 잃어버린 자들은 위로하신다.

²⁵ 주님께 돌아오고 죄악을 버려라. 그분 앞에서 기도하고 잘못을 줄여라. ²⁶ 지극히 높으신 분께 돌아오고 불의에서 돌아서라. 그분께서 너를 이끄시어 어둠에서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또 너는 그분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을 혐오하여라.

²⁷ 살아서 감사하는 이들을 대신하여, 누가 저승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 찬미를 드리겠느냐?

²⁸ 존재하지 않는 자처럼 죽은 이에게서는 찬양이 그치지만, 건강하게 살아 있는 이는 주님께 찬미를 드리리라.

²⁹ 주님의 자비는 얼마나 크시며, 당신께 돌아오는 이들에 대한 그분의 용서는 얼마나 크신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32(31),1-2.5.6.7(◎ 11ㄱ)

- ◎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씻은 이! 행복하여라, 주님이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영에 거짓이 없는 사람! ◎
- 제 잘못을 당신께 아뢰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았나이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하나이다.” 당신은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셨나이다. ◎
- 당신께 충실한 모든 이들이, 곤궁할 때 기도드리나이다. 큰물이 닥친다 하여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리이다. ◎
- 당신은 저의 피신처. 곤경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

복음 환호송

2코린 8,9 참조

- ◎ 알렐루야.

-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 ◎ 알렐루야.

복 음 <가진 것을 팔고 나를 따라라>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17-27

그때에 ¹⁷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¹⁸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¹⁹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²⁰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²¹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²²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²³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²⁴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²⁵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²⁶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²⁷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28일

연중 제8주간 화요일

제1독서 <계명에 충실한 것이 구원의 제사를 바치는 것이다.>

▣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35,1-15

¹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제물을 많이 바치는 것이고, ² 계명에 충실한 것이 구원의 제사를 바치는 것이다. ³ 은혜를 갚는 것이 고운 곡식 제물을 바치는 것이고, ⁴ 자선을 베푸는 것이 찬미의 제사를 바치는 것이다.

⁵ 악을 멀리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고, 불의를 멀리하는 것이 속죄하는 것이다.

⁶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마라. ⁷ 사실 이 모든 것은 계명에 따른 것이다.

⁸ 의로운 이의 제물은 제단을 기뻐지게 하고, 그 향기가 지극히 높으신 분께 올라간다. ⁹ 의로운 사람의 제사는 받아들여지고, 그 기억은 잊히지 않으리라.

¹⁰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네 손의 첫 열매를 바치는 데에 인색하지 마라. ¹¹ 제물을 바칠 때는 언제나 즐거운 얼굴을 하고, 십일조를 기쁘게 봉헌하여라. ¹²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네게 주신 대로 바치고, 기꺼운 마음으로 능력껏 바쳐라. ¹³ 주님께서서는 갚아 주시는 분이시기에, 일곱 배로 너에게 갚아 주시리라.

¹⁴ 그분에게 뇌물을 바치지 마라. 받아 주지 않으신다. ¹⁵ 불의한 제사에 기대를 갖지 마라. 주님께서서는 심판자이시고, 차별 대우를 하지 않으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50(49),5-6.7-8.14와 23(◎ 23ㄴ)

- ◎ 올바른 길을 걷는 이는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내 앞에 모여라, 나에게 충실한 자들아, 제사로 나와 계약을 맺은 자들아!” 하늘이 그분의 의로움을 알리네. 하느님, 그분이 심판자이시네. ◎
- 들어라, 내 백성아, 내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아, 나 너를 고발하노라. 나는 하느님, 너의 하느님이다. 제사 때문에 너를 벌하지는 않으리라. 너의 번제야 언제나 내 앞에 있다. ◎
- 하느님에게 찬양 제물을 바치고, 지극히 높은 분에게 너의 서원을 채워라. 찬양 제물을 바치는 이는 나를 공경하리라. 올바른 길을 걷는 이는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복음 환호송

마태 11,25 참조

-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 알렐루야.

복 음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복을 백 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28-31

²⁸ 그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²⁹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³⁰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백 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³¹ 그런데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학생 졸업 미사

제1독서 <주님을 경외함은 지식의 근원이다.>

▣ 잠언의 말씀입니다.

1,2-7

² 잠언은 지혜와 교훈을 터득하고, 예지의 말씀을 이해하며, ³ 현철한 교훈과, 정의와 공정과 정직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⁴ 또한 어수룩한 이들에게 영리함을,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현명함을 베푸려는 것이니, ⁵ 지혜로운 이는 이것을 들어 견문을 더하고, 슬기로운 이는 지도력을 얻으라. ⁶ 그러면 잠언과 비유, 현인들의 말씀과 수수께끼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⁷ 주님을 경외함은 지식의 근원이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업신여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사편 19(18),8.9.10.12-13ㄱ(◎ 요한 6,68ㄷ)

- ◎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 당신의 종도 이 가르침 익히리니, 이를 지키면 큰 상급 받으리이다. 저도 모르는 허물 누가 아오리까? ◎

제2독서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새 인간을 입어야 합니다.>

▣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4,17-24

형제 여러분, ¹⁷ 나는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¹⁸ 그들 안에 자리 잡은 무지와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정신이 어두워져 있고 하느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¹⁹ 감각이 없어진 그들은 자신을 방탕에 내맡겨 온갖 더러운 일을 탐욕스럽게 해댁니다.

²⁰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21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을 줄 압니다. 22 곧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 가는 옛 인간을 벗어 버리고, 23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24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마태 5,13.14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 ◎ 알렐루야.

복 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1-2.13-16

그때에 ¹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²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¹³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¹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¹⁵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¹⁶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